"우리들의 비엔날레는 끝나지 않았네"

광주비엔날레 작가들 인기 상종가

해외·서울 등 러브콜…왕성한 활동

2008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가 지난 9일로 폐막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작가들이 있다.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국내외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다. 특히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적었던 지역 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미술관계자의 '눈도장'을 받게 되면서 여러 굵직한 전시회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행운을 얻었다.

먼저 황지영, 남화연, 박문종, 신호윤씨 등 광주·전남 출신 참여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사진작가 황씨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지난 3~9일 열린 개인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전시에서 황씨는 비엔날레 기간에 선보였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연작인 '미소방' 시리즈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또 내년에는 서울의 한 갤러리와 대규모 개인전이 예정돼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독특한 텍스트와 연극적인 요소를 배치한 '망상 해수욕장'을 출품, 주목받은 남화연씨도 지난달 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플랫폼 서울 2008'을 통해 신작을 발표했다. 남씨는 이번 전시에서 '기차역'이라는 공간 기능을 상실한 옛 서울역사의 모습을 형상화 한 '파도는 높은데'를 출품했다.

비엔날레 '제안' 섹션의 '복덕방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박문종, 신호윤씨도 작업실을 아예 대인시장으로 옮겨 왕성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최근 광주 지역의 선술집을 소개한 책 '선술집 풍경'을 펴냈으며 신씨는 작가들의 모임인 매개공간 '미나리'의 전시 기획을 도우며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품작인 '미군과 아버지'가 2008 광주비엔날레 기념작품으로 선정돼 일약 '비엔날레 스타'로 떠오른 조동환·조해준 부자도 비엔날레 폐막 후 해외 전시와 책 출판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 부자는 이번 비엔날레에 소개됐던 가족사를 담은 연작을 만화 형식으로 묶은 '놀라운 아버지'를 낸데 이어, 아들 동환씨는 내년 유럽 전시회를 위해 현재 스페인, 파리 등에 머물며 전시관계자들과 세부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제안' 섹션 참여 큐레이터들의 활동도 눈부시다. 대인시장을 무대로 한 '복덕방 프로젝트'를 기획해 대인시장을 재발견한 큐레이터 박성현씨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시기획자로 떠올랐다. 그는 오는 20~25일 대인시장에서 국내 첫 시장 아트페어인 '제로-베이스 액션 아트'를 기획해 다시한번 지역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2008 광주비엔날레 전야제 행사로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형상화한 퍼포먼스 '스프링'을 총괄했던 큐레이터 클레어 탄콘스(미국)는 현재 제1회 뉴올리언즈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또 '제안' 섹션 '탐험7'의 큐레이터인 압델라 카룸도 광주비엔날레 폐막후 벨기에로 자리를 옮겨 브뤼셀비엔날레 큐레이터로 활동중에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0일 큐레이터 박성현(왼쪽)씨가 오는 20일 대인시장에서 개막하는 '제로-베이스 액션아트' 준비를 위해 참여작가들과 전시공간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윤난솔양 가야금 개인 독주회

"떨리지만 열심히 잘 할게요"

12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호남예술제 국회의장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운 윤난솔(장성여중 3년·사진)양에게 2008년은 잊을 수 없는 한해다. 올 5월엔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과 국회의장상을 받았고, 꼭 가고 싶었던 국립국악고에도 합격했다.

또, 12일(오후 7시30분)에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당당히 개인 독주회도 갖는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독주회라 자랑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걱정도 되지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난솔 양은 이번 연주회에서 '염불 도드리',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황금산의 백도라지' 등을 들려준다. 또 광주예고에서 피리를 배우고 있는 오빠 현명군과 함께 '대풍류'도 선사한다.

초등학교 때 합창단에서 활동하다 우연히 가야금 소리를 접하고 가야금의 매력에 빠져든 난솔 양은 호남예술제 가야금 산조 초등부와 중등부 최고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올해 열린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중등부 금상을 받는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가야금은 소리가 참 예쁘고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어 좋아요. 또 12줄 가야금 뿐 아니라 25현 개량 가야금, 궁중 가야금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좋기도 하구요. 전 요즘 유행하는 퓨전 음악도 좋지만 정통 국악이 더 매력적이예요. 꼭 가고 싶었던 국립국악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으니 정말 열심히 배울 거예요."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과 국악그룹 '가연하비'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난솔양은 대학 졸업후에는 국립국악원에서 활동하고, 기회가 닿는다면 교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Y 자서전 학교 '8인의 삶…' 펴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담아 자서전을 펴내 남은 삶에 의미를 더한 노인들이 있다. '폼나게' 남은 인생을 즐기는 이들은 바로 나점수·김경옥·박종례·박행도·위경애·안익현·이의충·정재희 씨다.

이들은 지난 4월 '광주YMCA 내 인생의 자서전 학교'에 입학해 8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자서전 '8인의 삶, 소중한 순간들'을 펴냈다. 오는 12일 오후 4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출판기념회도 연다.

총 236쪽인 이 자서전에는 전직 교장, 조합장, 시민단체 간부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노인들의 인생경험과 삶의 순간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에 도전했던 경험, 오리농장을 운영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리 1만2천 마리를 땅에 묻어야 했던 기억 등 저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광주YMCA 정의춘 팀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실버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내 인생의 자서전 학교'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에게 인생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234-0074.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와 함께 문향 가득한 도시 만들어요"

시낭송 모임 '비타포엠' 창립

신덕룡 교수

고재종 주간

장석남 교수

지역출신 시인들이 침체에 빠진 지역 문학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향'(文鄕)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낭송 모임인 '비타포엠 (http : // cafe.daum.net/vita-poem)'은 오는 18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벤처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모임에는 신덕룡(광주대 교수), 고재종(문학을 편집주간), 장석남(한양여대 교수), 이규성 시인 등 40여명의 시인이 뜻을 모았으며 시를 좋아하는 일반인 등 모두 100여명이 함께한다.

앞으로 이들은 매달 한차례 시낭송회를 열고 작가들을 초청해 강연회도 연다. 또 정기적으로 도서벽지 등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이 문학의 향기도 전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실버 판소리 경연대회 열린다

12일 광주시민회관

국악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판소리 경연대회가 열린다. (사)동초제 서봉 판소리진흥회 이사장인 소리꾼 방성춘(사진·광주시 무형문화재 제 16호)씨가 사비를 출연해 국악을 사랑하는 노인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한 행사다.

12일 오전 8시30분부터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2008 실버전국국악대제전에는 65세 이상으로 소리에 관심이 있는 노인들이 출전,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그밖에 학생부(초·중·고)와 일반부, 신인부 경연도 함께 열린다. 문의 062-652-429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백애경 개인전

19일까지 광주 남동 문화갤러리

서양화가 백애경씨가 오는 19일까지 광주시 동구 남동 문화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백씨는 꽃잎 하나를 화면 가득 그려 넣은 뒤 꽃잎의 무늬와 꽃술의 흔들림 등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서 백씨는 물감을 두껍게 칠해 질감을 살린 '꽃·사랑 노래' 연작을 선보인다. 빨강, 노랑, 보라 등 원색의 조화와 한옥의 처마 곡선처럼 경쾌하게 흘러가는 꽃잎의 배치가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백씨는 국제현대미술광주아트비전, 부산국제환경예술제, 아름다운 예술의 하모니전, NAFE 2009 동경전 등의 전시에 참여했다. 문의 062-233-696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꽃·사랑 노래'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악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트와일라잇 (12세)	최고급관
2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3관	4요일(18세)	
4관	기방난동사건 (15세)	
5관	트와일라잇 (12세)	
6관	순정만화(12세)/쏘우 V (18세)	
7관	과속 스캔들 (12세)	
8관	트로픽 썬더(18세)	
9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3관	미인도 (18세)
4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15세)
5관	바디 오브 라이즈 (12세)
6관	쏘우 V (18세)
7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목내·목외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트와일라잇 (12세)
3관	트와일라잇 (12세)
4관	쏘우 V (18세)/4요일(18세)
5관	007퀀텀 (15세)/순정만화(12세)
6관	미인도 (18세)
7관	트로픽 썬더(18세)
8관	기방난동사건(15세)오스트레일리아(12세)
9관	과속 스캔들 (12세)
10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롤롬버스 하남점 (10개관) 절찬리 상영중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신학 • www.cinua.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순정만화 (12세)미인도 (18세)
3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4관	4요일(18세)
5관	미인도 (18세)/기방난동사건(15세)
6관	과속 스캔들 (12세)
7관	트와일라잇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시루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007퀀텀(15세)/눈먼자들의 도시(18세)
2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3관	트와일라잇 (12세)
4관	순정만화 (12세)
5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6관	4요일(18세)
7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8관	과속 스캔들 (12세)
9관	미인도 (18세)
10관	기방난동사건 (15세)

* 50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사통문 기통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오스트레일리아(12세)
2관	과속 스캔들 (12세)
3관	미인도 (18세)
4관	트와일라잇 (12세)
5관	순정만화(12세)/쏘우 V (18세)
6관	기방난동사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